

불자 세상보기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서강대 교수

차별금지법 논란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개신교계 일부 지도자들과 단체들이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내용 중 '성적지향' 문제와 '종교차별' 문제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고, 전도나 종교교육은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법안 심의마저 못하도록 세를 걸것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종교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모든 차별행위를 금지·예방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07년 10월, 2010년 4월 두 차례나

입법을 시도했지만 의회선교연합 등의 저항으로 포기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2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진화로 받아들이는 환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신교의 저항은 인권신장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몽나라는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 우선 성적 지향은 지극히 사적인 문제다. 물론 성적 지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호, 불호를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개신교인들만의 기준인 '성경'을 내세우며 동성애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배제시켜야 할 '악'이라고 단정하며 차별하는 것은 지나치다. 종교차별도 그렇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선교관행을 떠올리면 개신교의 반발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적·공적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공격적으로 전도활동을 해오던 관성에 제동

이 걸리니 적응하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타종교를 자신들의 잣대로 '이단·사이베'로 몰아 심지어 납치 감금까지 하며 개종교육을 하기도 했고, 종교사립학교에서 강제로 종교교육을 하거나 종교의식을 하게 해 대법원에서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고도 개선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들기에 말이다. 1975년 미국교육연합회가 채택한 교육윤리강령에도 "인종, 성별, 출신, 정치적·종교적 신념, 문화적 배경, 성적 취향 따위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특정학생을 교육프로그램에서 배제하거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 차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개신교 전통이 더 강한 미국이 성경에 반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런 규정을 두었을 리는 없지 않은가. 이젠 대승적으로 내려놓을 때다. 먹고사는 문제와 사회민주화가 더 시급해 잠시 미뤄뒀던 '종교자유'를 되찾고 싶었는데, 터무니없는 논리와 종교이기주의로 인권신장국의 길을 막았다. 지난 수십 년 간 차별적 종교활동으로 무중

교인이나 타종교인들에게 준 마음의 상처를 사과해야 할 판인데, 위협적이고 반인권적인 종교차별을 돌아보려는 커녕 아직도 보물처럼 끌어안고 가겠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수의 논리, 힘의 논리가 사회적 소수자들의 세상살이를 힘겹게 한다. 종교도 세력화되어 힘을 구사하는 공룡이 되어버렸다. 이익에 따라 편가르기가 몸 에 배고,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몰아세우는 데 익숙해져 있다. 사회갈등을 증대하고 통합해야 할 정치인들마저 종교지도자들의 무리한 주장에 편들기를 하며 종교권력화에 앞장서 사회를 더 어지럽게 만든다. 인류역사의 발전은 인권확보의 변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조건과 환경, 특히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몸부림의 흔적이 바로 역사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1948년 유엔이 공식 발표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를 새삼 다시 새겨본다.

社說

부석사 관음좌상 환수 운동의 의미

부석사 금동관음좌상을 제자리에 모시기 위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제자리 불안위원회가 3월 21일 공식 발표했다. 그간 서산 시민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환수 운동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봉안위에 참여한 인신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고문에는 덕송총림 방장 설경스님이, 지도위원에는 수석사 주지 지은스님을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 4명과 서산시장과 시의회의장이 참여했다. 공동대표는 주경스님 등 지역 불교 인사뿐만 아니라 북관대첩비와 조선왕실의례 환수에 주도적 역할을 한 김원웅 前국회의교통신위원장 등이 맡았다. 사실 부석사 관음좌상은 환수돼야 마땅하다. 고려 당시 서산 지역에 왜구의 노략질이 잦았다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의 주장을 차제하더라도 현재 일본 대마도 관음사는 무인(無人) 사찰로 서산 부석사 불상을 봉안

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불상의 설명문도 오류가 많아 보관 관리에 허술함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대마도 관음사 측은 '불상을 반환한 후 소유권을 논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봉안위는 부석사 불상의 약탈 가능성과 한국 문화재 수탈사 등을 조망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유네스코에 환수의 중요성을 알리는 요청문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불교도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에 불상 환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당대의 민초들의 염원이 담긴 불상은 제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언론을 내세워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불상 환수를 놓고 갈등보다는 새로운 교류의 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봉안위의 바람이 이뤄졌으면 한다.

불교 주요 종단에 자살예방센터를

올해 연초, 참으로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야구선수이자 유명 연예인 故 최진실의 전 남편, 조성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2008년 최진실이 자살한 후 5년만이다. 조성민의 자살이후 부산에서는 하루만에 무려 7명이 생을 달리했고, 경기도에서도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용인, 화성 등 시군에서 자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33.5명으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8번째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세 배정도 높은 수치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0대 이상 남녀 700명 중 31.7%가 경쟁중심 사회때문이라고 답했고 양극화 심화를 두 번째로 꼽았다. 자살충동을 느껴 본 응답자들 중에서도 경제적 문제가 35.5%로 가장 많았다. 국민이, 특히 청장년층이 자살을 생각하고, 또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가장 큰 원인은 포괄적으로 대부분 '경제' 문제로 귀결되

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일했지만, 그 일자리는 자신의 입신영달은 물론이고 소중한 가족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자살은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정신무장도 필요하지만,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사회, 국민에게 기대를 부여하는 정부 등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그나마 2013년, 올해는 세계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벗어 던질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 이하 인권위)가 3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종단 내 자살예방센터를 둘 것을 제안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불교계가 앞장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해져 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들을 미리 예방시키고 막아야 한다. 이제 우리 불교계는 자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

발언대

- 학교폭력 이렇게 해결하자

최근 경북 경산에서 고교생 최모(15)군이 학교폭력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폭력 종합 대책의 허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불교계전문가들의 대안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집단놀이 통해 배려심 길러야



언어폭력 등으로 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 청소년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이해하는 이들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지난해 동국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명상과 집단놀이 등을 하며 아이들이 집중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라는 것을 보였다.

현재 학교 현장은 학업 중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성교육이 부족한 상황이다. 먼저 교사들부터 모임을 구성해 인성교육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기술을 익히기 위해 교사 연수 등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또 심성교육을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 등도 고려해야 한다. 중립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효과 등을 널리 알려 일반 학교에도 도입함이 마땅하다. 교사와 부모, 아이들이 다 같이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그날이 오길 바란다.

예방 외에 대처법도 중요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경쟁구도에 내몰리고 있다. 청소년들도 예외가 아니다.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왕따 현상과 청소년 폭력의 주요한 원인이다. 좌절, 실망감, 상실감은 우울증과 폭력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망률은 1위다. 그 이유로 학업경쟁과 교내 학생 집단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것이 많다.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는 것과 함께 피해자 학생들과 잠재적인 대상 학생들이 폭력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피해학생들이 가혹, 게임중독 등의 행동으로 자신의 상태를 표출되지만 부모나 교사들은 그 상태를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우울증 등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그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악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태를 살피고 청소년에게 명상 등 심성개발을 통해 정신순화를 이룰 전념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학교 현장에서 항상 아이들을 살피며 심리적 어려움들에 대처할 수 있는 지속적인 자기조절 훈련법을 제시해야 한다.

학교폭력, 교사·학교에 달렸다



경산고 고교생 최 군은 지난 11일 '지금처럼 해서는 학교폭력을 백퍼센트 못 잡는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것은 현재 학교가 생활 지도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위한 신고·상담지원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학교폭력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모두 입을 모으지만 이미 지난 2012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예방정책을 모두 쏟아냈다. 여기서 간과 하는 것이 있다.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 담임교사와 교장은 정책이 마련돼도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다. 담임교사들은 학교폭력사건에 휘말리기 싫어하며 학교에서도 학교 평가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까봐 쉬쉬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모군 역시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지 않는 담임교사와 학교에 절망을 느끼고 죽음을 택했다. 담임과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 CCTV가 100만~1000만대 설치된다 해도 학교폭력은 결코 줄지 않을 것이다. 학교폭력 근절의 열쇠는 학교와 교사들이 쥐고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판권: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교: (02)2004-8213-6 FAX (02)737-0696
현대불교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야 할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조상영명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영명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용,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